

星州地域의 退溪學脈

- 寒岡과 東岡을 中心으로 -

丁 淳 佑(정문연)

• 目 次 •

- | | |
|--------------------|-------------------|
| 1. 서언 | 4. 東岡 金字顯의 생애와 학맥 |
| 2. 星州 지역의 인문지리적 성격 | 1) 생애와 학문연원 |
| 3. 寒岡 鄭述의 生涯와 學脈 | 2) 東岡의 학문세계 |
| 1) 생애와 학문연원 | 3) 동강의 학맥 |
| 2) 한강의 학문세계와 퇴계 | 5. 맺음말 |
| 3) 한강의 학맥 | |

1. 서언

성주지역은 경상좌도와 우도의 접점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특색은 성주의 학문적 성격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성주는 좌도의 퇴계학과와 우도의 남명학파의 사상이 함께 공존한다. 퇴계의 理學的인 전통과, 실천과 實事를 강조하는 남명의 사상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 따라서 이 지역 인물의 학통은 자연스럽게 퇴계와 남명 양인에게 함께 걸쳐져 있다. 최근 한강 정구와 동강 김우옹의 학통을 둘러싼 학계의 논의가 분분하다. 한강은 사실상 퇴계보다는 남명의 문도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고, 동강과 퇴계와의 관련성은 사실상 희박하며 양자의 관련성을 강조하는 것은 광해군이래 복인의 몰락과 함께 나타났던 정치적 영향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논의가 조선조 유자들에 관한 '學派'와 '學統'의 새로운 개념 규정의 필요성을 제기해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대부분 婚班이나 師承 관계, 혹은 지역적 연고를 토대로 하는 기존의 학파 구분은 사상의 내적 연관성을 밝히지 못하는 한 매우 불안정하다. 도통에 관한 계보학적 연원 (genealogy of the way)을 확인하고자 하는 노력은 조선조 선비 문화의 한

핵심을 이루고 있었다. 예컨대 及門諸賢錄, 師友淵源錄, 學案의 이름으로 간행된 독립된 형태의 계보도로부터, 문집의 시문이나 行狀 등을 통해 개인적 차원에서 진술되는 연원도 까지 그 형태는 다양하다. 특히 퇴계나 우암과 같은 학문적 宗底에게 학문적 연원을 잇고자 하는 노력은 대를 이어 가히 필사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조선시대에 있어 이렇게 학통이 강조된 것은 도학의 정당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성리학적 사유와 맞닿아 있다. 조선시대에 들어 도통의 이론적 확립에 가장 노력했던 인물은 바로 퇴계 자신이었다. 그는 『聖賢道學淵源』이나 『宋季元明理學通錄』 등의 저작을 통하여 그가 제시하는 학통의 이론적 근거를 밝히고자 진력하였다. 또한 가까이는 김종직, 조광조 등 조선조의 선대 유자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리의 유학적 계보도를 새롭게 작성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러나 퇴계 사후 이러한 이론적 비판에 근거한 도통론은 자취를 감추고, 당색이나 혼반 혹은 도식적이고 인간적인 사승관계 만을 중심으로 학문의 계보도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만약 조선 후기와 같은 문법으로 학파를 정의한다면, 성주 지역의 경우에도, 적어도 복인 정권의 몰락 이후에는, 소수의 노론 집안을 제외하고는, 퇴계와 학문적 연원을 연결하고자 노력하지 않았던 가문은 없었다고 단언할 수 있다. 따라서 학문의 경제성을 고려한다면 차라리 아주 적은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성주지역의 非退溪學派> 혹은 <성주지역의 反退溪學派와 서원>등으로 주제를 잡고 서술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고 간단한 작업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성주지역의 퇴계학파”라는 주제가 지니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는 우선 이 주제가 지니는 나름대로의 의미를 성주 지역이 퇴계를 중심으로 학파가 성립하고, 통합하고 혹은 분화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적절한 문화적 특색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성주는 성리학의 해석 방식과 수용과정에서도 안동문화권이나 진주문화권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성주의 이러한 특징은 퇴계 사상의 수용과 해석과정에서도 드러난다. 우리는 그것들의 간단한 예를 川谷書院의 설립과정, 한강과 동강이라는 걸출한 사상가의 출현과 퇴계 해석, 그리고 한주학파의 분화과정 등에서 읽어

볼 수 있다.

잘 알려진 바처럼, 천곡서원의 설립과정에서 나타난 시비의 핵심은 퇴계와 한강이라는 도학과와 기존의 토착세력 사이의 이념적 충돌인 것이다. 이 분쟁은 1558년 盧慶麟(1516-1568) 등이 智藏寺 옛터인 明巖坊 雲谷里 伊川에 공민왕 시기 星山侯에 봉해졌던 李兆年과 그의 손자인 李仁復 그리고 金宏弼을 배향하기 위하여 迎鳳書院을 설립코자 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이 시도는 儒者들의 반대에 의해 결국 무산되었다. 그 유자들의 논거는 李兆年과 李仁復의 영정에 염주가 들려 있기에 오직 寒暄堂만을 從享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실제적인 이유는 이인임 등 權貴화된 토착세력에 대한 견제의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논의는 寒岡이 퇴계와 상의하여 이름을 川谷書院이라 개칭하고 程頤와 朱熹 그리고 寒暄堂을 중향하면서 이조년과 이인복은 別堂으로 밀려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默齋 李文楨은 '鄉賢은 무시하고 道學만을 숭상한다'면서 퇴계에게 불만을 표출하고 있었다. 천곡서원의 설립은 사실상 퇴계의 도학적 해석이 성주지역에 본격적으로 착근하는 한 계기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기존의 토착적인 세력과의 피할 수 없는 알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寒州 계열과 도산서원간에 일어났던 이념적 충돌은 퇴계학파의 발전 과정에서 보이는 매우 독특한 현상이다. 한주 이진상의 心卽理說이 과연 퇴계의 心合理氣說을 과연 발전적으로 계승한 것인가, 혹은 퇴계의 학설을 부정했는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좀 더 정치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주문집이 도산서원에 의해 반송되고, 한주를 배척하는 통문이 도산서원과 道南書院을 중심으로 일어 난 후, 한주의 제자인 면우 곽종석, 후산 허유, 회당 장석영, 한계 이승희 등 이른바 洲門 八賢의 사상적 계보는 오랜 기간 표류하는 상태였다. 따라서 현재적 관점에서 한주와 퇴계의 사상을 상호 비교해 보고, 그 사상 내적인 연관성을 규명해 보는 작업은 '퇴계학파'에 대한 새로운 의미 규정을 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주제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이 주제는 아직 필자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므로 추후 보완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다만 한강과 동강 두 계열의 인물들이 퇴계 사상을 어떻게 수용했는가 하는 사실만을 논하고자 한다.

2. 星州 지역의 인문지리적 성격

성주는 태종조에 牧으로 승격한 이후 몇 차례 昇降을 거듭하였다. 광해군 7년(1614) 8월에는 州人 李昌祿이 광해군과 조정을 비방한 사건으로 牧이 혁파되어 고령현에 合屬되었다. 2년 후인 광해군 9년에는 다시 新安縣으로 개칭되어 고령현으로부터 분리되었다. 인조반정(1623) 후에 다시 牧으로 승격되었으나, 동왕 9년 2월에 일어난 權大進의 모역사건에 성주인 박훈이 연루되어 다시 성주현으로 강등되었다.¹⁾ 10년 후인 인조 18년에 다시 목으로 승격되었으나, 5년 후인 인조 22년에 다시 이권의 모역사건이 일어나 성주현으로 강등되었다가 10년 후인 효종 4년에 다시 復號되었다. 그후 영조 12년에 관아소속의 官奴·官婢·邑校가 목사 이성계를 독살한 사건이 일어나 동 10월에 다시 성주현으로 강등되었고²⁾ 10년 후인 동왕 21년(1745)에 목으로 환원되었다.

조선시대 성주의 속현은 八莸·花園·加利 등 3縣으로 구성되었고, 고려 현종 9년에 래속하였다. 그러나 이들 임내 중 팔거·화원은 17세기에 성주에서 떨어져 나감으로서 이후에는 결국 가리현만이 계속 屬縣으로 남게 되었다. 팔거는 인조 18년(1640) 漆谷都護府의 설치로 인해 속현에서 벗어났는데, 이 팔거현의 분리는 조선시대 성주에 있어서 행정편제상의 그리고 지역상의 큰 변화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앞서 1597년에 도체찰사 李元翼이 성주에 설치되었던 鎭을 팔거로 옮기는 등 이 지역의 군사적 중요성은 이전부터 인식되어 있었다. 그런데 가산산성을 쌓게 되자 결과적으로 지나치게 읍치로부터 떨어져 있게 되어 도호부를 설치하게 된 것이다.

또한 화원현은 고려시대에는 대구와의 移來를 거듭하다가 조선시대에 와서 태종이래 성주의 속현으로 존속하였는데, 임진왜란을 겪고 난 선조 34년(1601) 경상도 감영이 대구에 移置됨에 따라 감영의 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대구에 일시 소속되었다가 성주에 환속되었으나, 숙종 10년(1684)에 대구부로 다시 移

1) 『승정원 일기』 제 32책, 인조 9년 4월 8일조.

2) 『영조실록』 권 42, 12년 10월 을축조.

屬되었다. 화원현은 가리현 지역과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데 이것이 고려·조선 시대에 성주와 대구간의 소속변동이 거듭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일 것으로 생각된다. 성주와의 거리가 70리나 떨어진 상태라면 늘 있어온 출납의 폐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출납의 폐는 공납뿐만 아니라 역부담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었다. 대구로 이속하기 직전 화원 현민은 감영에 柴草를 바치면 성주(분주)에 바칠 것을 감해주는 것을 근거로 측히 武士 군졸이 모두 영문에 의탁하여 성주의 역을 피하고 있었다.³⁾

한편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영남읍지』에 등재된 성주의 성씨는 다음과 같다.

星州牧 姓氏 7	李·裴·呂·白·全·朴·車
加利屬縣 姓氏 5	尹·趙·李·洪·鄭
八萬屬縣 姓氏 3	都·玄·任
本州	李·裴·呂·白·全·車·朴(開京)·姜·孫·金·趙·權·羅·宋·柳·禹(并來)·鄭(淸州)
加利	尹·趙·李·洪·鄭·金
花園	丁·曹·葛·徐·石·韓·李·白(并來)
漆谷	都·玄·任·田·卞·裴·林(并來)·李(廣州)

성주는 경상도의 중앙에 위치한 대읍으로麗初부터 土姓勢力이 강성하였다. 성주는 본래 후삼국시대 碧珍將軍 이충언(李忠言)의 據城으로 그때부터 주위의 任內를 영속시켜 京山府로 발전하였다.⁴⁾ 이 지방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던 이충언은 그 자손대에 와서 상경중사한 在京勢力과 在地勢力으로 分化되어 갔는데 後者는 在地土姓의 일반적인 경향과 같이 本邑의 鄉職을 세습하면서 계속 중앙에 官人을 공급해 주었다. 조선전기까지 속현으로 남아있던 加利·팔거·花園縣도 각기 土姓이 있었는데 加利 李氏(李承休)와 팔거 都·玄氏를 除하면 나머지

3) 金武鎭, 『朝鮮前期 星州鄉村社會의 構造와 支配層 動向』(『韓國學論叢』 18.)

4) 『慶尙道地理志』 星州牧條 및 旗田巍, 〈高麗王朝成立期の府と豪族〉, 『法制史研究會』 10, 1960 : 『朝鮮中世社會史の研究』, 1972, pp. 24~38) 참조.

土姓은 후세에 나타나지 않는다.⁵⁾

성주는 朝鮮太祖朝에 한때 界首官이 되기도 하였으나 나중에 慶·尙·晉·安의 4개 界首官으로 축소되면서부터 성주는 일반 牧使를 두었다. 성주는 土姓數에 있어서 많을 뿐만 아니라 각 土姓의 姓勢도 번창하였다. 성주를 本貫으로 하는 李氏는 조선후기에 와서 碧珍·星州·京山·星山 등의 본관으로 나누어졌다. 그런데 16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이러한 구분 없이 다같이 星州 또는 碧珍 李氏로 호칭되었던 것이다. 이들 李氏는 결국 星州地名을 本貫으로 하는데는 일치하고 있으나, 시대의 진전에 따라 혹은 上京從仕하는 시기의 先後에 따라 구분된 것 같다. 이미 麗初에 이충언 子孫代부터 土族과 吏族으로 분화되어 나가듯이, 고려중기 이전에 상경종사한 일파가 碧珍李氏로 호칭되고, 고려후기 星州吏族에서 명문으로 成長한 李長康家門이 星州李氏로 호칭되고, 조선전기까지 吏族에 머물고 있던 一派가 점차 사족으로 성장하면서부터 星山李氏가 된 것 같다. 또 李能一을 시조로 하는 京山李氏가 있다.⁶⁾ 이 一派는 麗末鮮初에는 族勢가 碧珍과 星州에 다소 뒤졌지만 사환은 계속되었고 조선중기 이후에는 在地勢力이 강하였다.

李長庚 자손이 상경종사하기 전 明宗朝에 진출한 李勝章 가문이 있었다. 그의 父 李棟民은 한미한 出身으로 上京遊學하여 科擧를 거쳐 出仕하였고 그의 子와 女壻에 사환이 계속되었다. 碧珍 또는 星州李氏로 麗末鮮初에 걸쳐 閥族으로 발전한 家門은 다음의 두 系列이 주가 되었다.⁷⁾

5) 李樹健, 「嶺南士林派의 形成」, 1979, p. 98.

6) 『增補文獻備考』 卷 47, 帝系攷 8, 附 씨족 2 소재 성주를 貫鄉으로 하는 李氏에 星州·碧珍·京山·廣平李氏만 있고 星山은 나타나지 않는다. 사실 星州地名을 本貫으로 하는 李氏는 결국 同根異派이며 屬縣土姓인 加利李氏만이 별개라 할 수 있다.

한편 15세기 士林派에 속했던 李世仁 家門도 李能一을 始祖로 하고 있다.(『國朝人物考』 中 p.1301 李世仁墓碣銘(申用漑撰))

7) 李樹健, 前掲書, p. 99 참조.

①이충인→永…曾→	實→芳華…堅幹(大提學)→玠(大提學)→君常(司宰副正)→希慶(元*)→審之→孟專兄弟
②…敦文→得禧→長庚→ (戶長)(戶長)(戶長)	寶→芳果(副戶長)→敦儒(安逸戶長)→時會(副戶長)… 百年(文科, 密直司事)→鱗起(府尹)→元具(星山君)→崇仁→卞年(參知正事)→承慶(平章事)… 萬年·億年 兆年(政堂文學, 功臣)→褒(侍中)→仁復(侍中) 등 7兄弟

첫 번째 계열의 경우는 李堅幹대부터 『고려사』에 나타남을 보아 두 번째 계열 보다는 시기적으로 앞서 진출하였으나 거기에도 사족과 吏族이 형제간에서 분화되었다. 첫 번째 계열은 趙日新 亂때 연루되어 큰 타격을 받았으나 국초에 와서 다시 족세가 번창하여 경향각지에 분포되었고 이맹전·이약동·이장곤 등 인물을 배출하였다. 이맹전은 공조전서 여극회(성주)의 외손으로 성주에서 외향을 따라 선산에 이주하여 金宗直父자와 사우관계를 맺게 되었다.⁸⁾ ②는 성주 용산리에 세거하면서 호장직을 세습해오다가 이장경의 5자가 등과출사하면서 일약 명문으로 발전하였다.⁹⁾ 두 번째 계열은 고려중기에 진출한 동래정씨와 후기에 진출한 순흥안씨, 한산이씨 등과 같이 군현호장에서 처음 진출하여 명문 문벌이 된 대표적인 예이다. 李兆年은 향공으로 출사하여 최고관에 올랐고 그 일문에 인물이 배출하여 조정에 布列하게 되었다. 이 가문은 곧 권문세족으로 발전하여 러말에 극성기를 맞이하였다가 이인임과 왕조교체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으나 신왕조에 와서도 사환은 계속되었다. 그런데 첫째 계열의 이회경 후손은 선초에 주로 영남지방에 거주하면서 사람파로 활동한데 반하여 두 번째 계열의 가문은 러말에 상경중사 하면서부터 주로 재경관인으로 행세하여 영남사람파와는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성주토성은 사족과 이족을 막론하고 족세가 강성하였는데 이족에는 이씨·배씨·백씨·전씨와 팔거도씨 등이 성주의 향리세계를 영도해 나갔다. 이들 이족은 부자형제가 호장직을 세습하면서 행정실무를 장악하였고 또 營吏 京邸吏와 연결된 이족세력이 때로는 재지사족과 대항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씨와 함께 성주배씨와 팔거도씨도 사족과 이족으로 분화되어 있었고 이족에서 사족의 길을

8) 『彝尊錄』上, 先公師友第三 및 『一善誌』, 『生六臣集』 참조.

9) 『東文選』卷 124, 李兆年墓誌銘 및 同書 卷 126, 李仁復墓誌銘 참조.

계속 견고 있었다. 성주 여씨도 조선후기에는 족세가 번성하여 사족과 이족을 다 갖추고 있었다.¹⁰⁾

이상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성주의 여러 사족성씨 가문은 16세기에 이르러 그들 중심의 향촌지배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향안을 작성하고 있었다. 따라서 16세기이래 성주지역에 있어서 퇴계학파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향안에 등재된 인물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조강희가 분석한 〈성주향안〉에서 조선시대 성주의 지배성씨를 살펴보면 표-1과 같다.¹¹⁾

〈표-1〉 성주향안에 수록된 성씨

	李	金	鄭	宋	呂	朴	權	文	崔	全	羅	裴	韓	張	都	慎	柳	敦	吳	姜	洪	합계	
1시기	25	12	6	4	9	7	3	1	3	1	2	2	1	1									77
2시기	36	8	1	7	10	10			1		1	5		4	7	1	1	3					95
3시기	63	28	6	18	35	22	2	3	15		3	7		14	13	3	1	9	2	1	2	247	

출전 : 〈성주향안〉(『경북향교자료집성』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비고 : 1시기 = 1607~1633. 2시기 = 1686~1689. 3시기 = 1763~1765.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시기 성주의 지배성씨는 시기에 따라 일정한 변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시기인 17세기 전반에는 주로 이씨와 김씨를 중심으로 여·박·정·권씨 등이 중심되는 성씨였지만, 18세기 후반에는 이씨와 김씨 못지 않게 송·여·박씨, 그리고 최·장·도씨들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일부의 성씨는 향안에서 소멸되고 있음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려말선초에 뿐만 아니라 조선후기에도 사족의 거주지 이동이 전개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성씨 상호간의 부침은 특정 성씨집단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간 경우이거나, 조선후기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따른 가세

10) 『세종실록』 권 96, 24년 6월 庚寅 朔條에 의하면 당시 星州戶長 李屹과 書員 全由善·李寬尙 등은 貢法 弄姦으로 인하여 元惡鄉吏로 全家徒邊되었다. 한편 『椽曹龜鑑』에 의하면 戶長名軍에 李仲男·배빈·裴德秀·裴文範·武範兄弟·全克昌·白如圭·都宗彪 등이 나타나며 監營吏·兵營吏로 차출되는 경우도 많았다.

11) 趙康熙, "성주지역의 향촌지배층의 형성과 발전"(미발표유고)

의 흥망에 연유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조선시대 성주의 동성촌락은 바로 유력가문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퇴계학파와의 연맥도 바로 이 문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유력가문은 의성김씨·성주이씨·경산이씨·성산이씨·벽진이씨·전주이씨·청주정씨·성주정씨·성주도씨·성주배씨·양성송씨·순천박씨·성주여씨·인동장씨·영천최씨 등이었다. 결국 이들 유력가문은 조선후기에 그들 거주지를 중심으로 동성촌락을 형성하였다. 최근에 간행된 성주지역의 대표적인 사족과 그 세거지 및 원사를 열거해 보면 <표-2>와 같다.

<표-2> 성주지역 동성촌락의 분간

성씨	동성촌락명	院祀(위치 및 건립연도)	배향인물
성주배씨	중산동(강정) 도남동(뒷개)	道川書院(뒷개, 1785)	裴尙龍·裴尙虎
벽진이씨	초전면 월곡동	汶谷書院	李堅幹 등
청주정씨	수성동(갯말) 신저동(양정)	檜淵書院(양정, 1627)	鄭述
전주이씨	신파동(신당)	新溪書院(신당, 1694)	李勝心 등
순천박씨	수륜동(운동) 오천동(마산) 성동(달리)	德峰書院(덕촌,)	朴可權 등
영천최씨	남은동(법산·작천·강정)	鰲巖書院(강정,)	崔恒慶 등
성주도씨	운정동(은행정·나복) 해평동(중동·중평·부흥리)	雲川書院(은행정,)	都應·都衡 등
성주여씨	해평동(원정·석지·징기) 매수동(가수촌)	月會堂(원정, 1516)	呂希臨 등
인동장씨	봉계동(가곡)	伊陽書院(가곡)	張鳳翰 등
의성김씨	칠봉동(사도실)	晴川書院(사도실, 1729)	金宇翁 등
성주배씨	경산동(작은배리·큰배리) 대황동(아랫감도·뒷감도)	景節祠(구동골,)	裴克廉 등
야성송씨	고산동(공서·공동·논골) 대장동(장산·도천·대마), 문덕동(동천)	鳳岡書院(고산동,)	宋希奎 등
성주도씨	용각동	三宜亭(덕외)	都衡 등
경산이씨	안포동·유월동	德巖書院(유월동,)	李天培 등
성산이씨	대포동(한개) 문방동 오도동(정화리)		
동래정씨	운산동 (괴연)	鰲巖書院(괴연,)	鄭述·鄭鍾 등

이들 지배층은 서원, 서재 등을 건립하여 자시들의 세력기반으로 삼았다. 경북에 세워진 사우 179개소 중에 성주가 10개소가 되었다. 일정한 규모를 갖추게 되는 서원뿐만 아니라 서재를 광범위하게 세움으로서 유교적 가치관의 확산이라는 교화측면과 유교적 질서의 향촌사회 수립을 세워나갔다. 성주의 경우 『교생안』을 보면 성주향촌사회의 지배층은 향교를 기피하였던 것이 아니라 향교의 교생 역시 그들이 중심이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¹²⁾

3. 寒岡 鄭述의 生涯와 學脈

17세기 전반 성주일대는 정구와 장현광에 의해 소위 한려학파가 형성되었다. 이들은 퇴계 사후 침체의 모습을 보이던 안동문화권을 대신하여 사림을 주도해 갔다. 인조반정 후 영남은 鄭仁弘·李爾瞻·韓纘男을 위시한 대북이 몰락하고, 일단의 소북과 영남우도의 많은 선비들이 퇴계학과 쪽으로 경사되었고 그 중심에 한강 정구가 있었다. 이제 한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1) 생애와 학문연원

한강 정구(1543-1620)는 星州 柳村에서 출생하여 八苮縣 사양정사에서 말년을 보내었다. 그의 선대는 대대로 서울에서 살았다. 그러다가 한강의 조부 祖父 應詳이 寒暄堂 金宏弼의 門下에서 수업하다가, 한훤당이 응상의 뜻과 덕행을 사랑하여 그를 사위로 삼았다. 이로 인해 그의 부친인 思中이 落南하여 외가인 玄風 率禮村에 살다가 뒤에 星州李氏와 혼인하여 성주 沙月村에 정거하게 되었다. 그의 이러한 가문의 배경은 그의 학문성격을 결정하는 데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¹³⁾

12) 『慶北鄉校誌』(경상북도, 영남대학교, 1991) p. 715-716.

13) 『寒岡全書』 「寒岡鄭先生行狀」 "承旨公 受業于寒暄堂金先生之門 金先生愛其志行 妻之以女 公遂月動習 益樹其家庭之訓 判書公 天資寬廣 不設畦畛 人謂之不失赤子之心 其孝友至行 實有人所難及者 以寒暄夫人朴氏在玄率禮村 公既孤奉母夫人 自京未寧 倂

한강의 어린 시절은 남명의 학문세계를 호흡하며 살던 시기이다. 그는 13세 때에 남명의 고제인 德溪 吳健과 사제간으로 만나게 된다. 남명학파와의 연결점이다. 당시 星州鄉校의 教授官이었던 덕계와의 만남은 東岡과의 연계점도 되는 것이었다. 덕계는 한강에 대해 “문장뿐 아니라 器識 또한 다른 이들보다 뛰어나 앞으로 성취하는 바가 반드시 보통 사람들의 미칠 것이 아니다”라고 그 가능성을 격려하였고, 14) 한강도 덕계를 평생의 스승으로 삼았다. 15) 또한 그가 15세에 작성한 「醉生夢死嘆」은 동강의 「天君傳」에 바탕하고 있는 사유와 거의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天君의 바른 길을 찾기 위해서는 敬義挾持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下學處에서의 노력을 통해 明德을 밝히고자 하는 일상중심의 사유까지 매우 유사하다. 16) 한강은 그의 나이 21세 때, 중형 鄭崑壽와 함께 퇴계를 만난다. 퇴계는 정곤수와 한강에게 한훤당의 여풍이 남아 있다고 언급하였다. 17) 이후 한강은 퇴계에게서 ‘爲學次第之方’을 듣게 되었다. 그리하여 한강은 지난날 미처 깨닫지 못하였던 ‘爲學所定之處’를 터득하게 되고, 이 때부터 더욱 힘써 학문이 날로 넓어졌다고 술회하고 있다. 18) 퇴계를 대면한 이후에도 한강은 서면으로 『心經』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해 가을에 진사시에 합격하지만 이듬해 22세 때에는 회시를 보지않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다.

24세 때에는 남명의 문하에 들어가 수학한다. 남명은 “士君子의 큰 절개는 오

留居其側 及公娶于星州 則州亦文獻之鄉 故遂居焉 卽州南南山里沙月村也”

- 14) 『寒岡全書』 「年譜」, “先生自妙齡 篤志勵行 以聖賢自期 受學於師 刻不自放過 文理一通 辭義日達 德溪令諸生作七夕辨 先生即呼襄德秀 而書之 口號不停 言皆正大 德溪大加稱歎曰 非徒文辭出群 器識亦已超人 他日所就 必非凡輩所及”
- 15) 『寒岡全書』 「挽 德溪吳先生」, “收餘芳兮 佩服終身世”
- 16) 『寒岡全書』 上 卷1 「詩」, “受命當年得其秀 形肖上下人其名 一皆靈臺主萬善 妙用獨處知虛靈 通神知化立人極 踐形然後能順寧 如何放倒一種人 迷老醉夢終不醒 朝晝所爲致犝亡 可憐生意無由萌 貪踐暴慢賊四端 食色臭味淪七情 良心發處私已動 正念起時邪先生 堪嗟十塞無一曝 醉邪蒙邪長昏暝 三綱既淪九法斃 假假百年甘蠱盲 自將皇天付卑身 橋堪迷路立墮坑 雖然一脈尙碩果 生意所以根於貞 喚醉主人豈無道 寸膠可使黃流清 三軍旗脚勿字上 天君正理要明誠 敬意夾持動靜間 下梢遂使明德明 依然一朝透覺關 得見翁孃與弟兄 却怕天日已遲暮 俯仰獨立愁前程”
- 17) 『寒岡全書』 「年譜」, “曾見鄭崑壽及其弟述 皆志居好善之士 寒暄外孫 豈無餘風耶”
- 18) 『寒岡全書』 「年譜」, “癸亥年 先生拜退溪先生 質以所疑 李先生語 以聖門爲學次第之方 於是始覺前日所向之未有所定 而向裏鞭策 規模日廣 事業日弘”

직 출처에 있으니, 너는 출처에 있어서 거칠게나마 깨달은 것이 있으니 내 마음이 그것을 허여하노라¹⁹⁾”하였다. 이 곳에서 한강은 동강과 來庵 鄭仁弘 등과 교유하게 된다.

31세때 宣祖가 山野操行之士를 추천하라고 명하자 동강이 한강을 퇴계와 남명에게 수학하고 학문이 밝고 재능이 뛰어나다고 천거하였지만²⁰⁾, 한강은 나아가지 않는다. 이 때 寒岡精舍를 세워 강학의 첫 출발점으로 삼는다. 이 한강정사에서 그는 퇴계의 『朱子書節要』의 총목을 분류하여 『改定朱子書節要目錄』을 편찬하고 『家禮輯覽補註』를 짓는다. 33세때 그의 외선조인 「寒暄堂年譜及師友錄」을 편찬한다.

그 뒤에 한강은 여러번 천거를 받았지만 모두 거부하고, 38세 때에야 드디어 창녕현감으로 나아간다. 이 때 한강은 선조에게서 퇴계와 남명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이황은 德器가 渾厚하고 실천이 독실하며 공부가 純熟되고 계급이 분명하여 학자가 쉽게 찾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식은 器局이 峻整하며 재기는 豪邁하고 超然하여 自得하고 홀로 우뚝 서서 행하기에 배우는 자가 좀처럼 규명하기 어렵습니다.²¹⁾

퇴계와 남명에 대한 한강의 이러한 평가는 두 사람의 학문적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낸 것 중의 하나로 평가된다. 한강이 후일 퇴계 문하에 좀 더 밀접하게 된 이유는 내암 정인홍과의 갈등이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발단은 의례적인 문제에서 발생하였다. 이 때 한강은 동강을 위해 만시를 쓰면서 퇴계를 먼저 언급한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한강과 내암은 결별하게 된다. 가장 근본적인 불화는 내암이 회재 이언적과 퇴계를 심하게 공격하였기 때문이다.²²⁾ 한

19) 『寒岡全書』 「年譜」 “士君子大節 惟在出處 汝於出處粗有見得 吾心許之也”

20) 『寒岡全書』 「年譜」 “宣祖命推山野操行之士 金東岡以修撰入侍 啓曰 鄭述會從李滉學 又嘗往來曹植之門 學問通明 才局有裕 當今以布衣入對訪問然後 授之以爵 可也”

21) 『宣祖實錄』 “李滉 德器渾厚 踐履篤實 工夫純淑 階級分明 學者易以尋入 曹植 器局峻整 才氣豪邁 超然自得 特立獨行 學者難以爲要”

22) 『寒岡全書』 「年譜」 “先生初與仁弘同師南冥, 已知其剛偏忌克 難與爲善 至是 仁弘纂

강의 생애를 살펴볼 때, 실제적으로 퇴계와의 관계는 극히 일시적이었다. 그러나 그가 지니고 있던 퇴계에 대한 존경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 때문에 내암이 퇴계를 비난한 것에 대해 참지 못했고 결별했던 것이다. 한강은 퇴계의 온화한 인간적 풍도를 잊지 못하였던 것이었다.²³⁾ 그리하여 한강은 퇴계의嫡統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되었다. 65세 때에 퇴계에게 급문한지 44년 만에 예안의 도산서원을 들러 퇴계 선생에게 알묘한다. 그 이후에 대북정권에게 全恩說을 주장하는 등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한강이 남명을 존경하는 마음은 근본적으로 변함이 없었다. 내암이 한강에게 남명을 배사하였다고 공격하자, 한강은 “선생님을 존경하는 것은 나보다 더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²⁴⁾”라 말하였다. 한강은 실제로 학문의 방법이나 수양의 방법은 퇴계에게서 강한 영향을 받았으나, 학문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개방적 성향은 남명에게서 비롯되었다. 특히 한강이 ‘敬義’를 삶의 지표로 삼고 부단히 실천하려고 노력한 것은 남명의 가르침에서 연유된다.²⁵⁾ 특히 남명은 사서오경 그리고 성리학서적 뿐만 아니라 천문·지리·병법 등 매우 넓은 범위의 학문을 섭렵하였다. 이러한 특성이 한강에게도 그대로 연결된다. 한강 역시 문인들이 평하는 것처럼 “읽지 않은 책이 없고, 힘써 실행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익히지 않은 사물이 없으며, 藝에 탐구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²⁶⁾” 실제로 의학·천문·지리·역사 등 거의 모든 부분에 손대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러한 학문의 광범위한 접근은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요청에 의해서였다. 그 실용적 정신은 『古今名宦錄』·『成川守臣題名案』·『治亂提要』·『歷代紀年』·『儒先續錄』 등의 역사서 편찬에서도 나타난다. 그는 역사서를 통해 사람들의 鑑戒가 되어 사람들을 교화시키기 위함이었다. 그는 禮書 등을 편집함에 있어서도 사회 풍속과

南冥文集 任其偏見 取舍乖當 詆斥誨退 無所不至 先生絕之”

23) 『寒岡全書』卷12 「祭退溪先生墓文」 “逮也小生 幸早及門 提掖之厚 敢忘隆恩 惟其魯莽 白首無憑 顧省平生 慙悼何勝”

24) 『寒岡全書』 「年譜」 “至以背師目之 先生聞之曰 莫如我敬先生”

25) 『寒岡全書』 「言行錄」 “先生束脩 往拜於南冥先生之門 佩服敬義之訓 益篤踐履之功”

26) 『寒岡全書』 「學問」 “先生志學以來 勤敏刻苦 於書無所不讀 於行無所不力 於事無所不習 於藝無所不求”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였다. 또한 관직생활을 할 때 『昌山志』·『同福志』·『咸州志』·『通川志』등의 지방지를 만들고, 이외에도 『永嘉志』등의 편찬에도 관여하였다. 이러한 지방지를 엮음은 자신이나 자신 이후의 관찰사들이 이 지역을 효과적이고 실제적으로 관리 지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실용 정신이 眉叟 許穆에게 전달되어 近畿實學派의 始發點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었다.

그의 언행록에서는 한강의 이러한 학문적인 성향을 퇴계와 남명 두 스승에게서 공히 물려받은 것임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선생은 이미 退陶 선생의 문하에 들어가서 『心經』을 質疑하고 정밀하게 생각하고 실천에 힘썼다. 또 남명 선생을 배알하고 고상한 풍모에 敬仰하였다. …… 그들과 從遊하면서 질문하여 지혜와 건문이 광대하였으며 뜻을 돈독하게 하고 행하기에 힘써서 홀로 그 으뜸이 되었다.²⁷⁾

2) 한강의 학문세계와 퇴계

한강의 학문 세계와 퇴계 사상과의 관련성은 앞으로 좀 더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체적인 흐름을 통해 볼 때, 한강의 학문세계는 퇴계로부터 발원한 것은 사실이나, 그의 사유는 이미 변화된 17세기 사회에 깊이 침잠해 있다. 한강의 학문은 理氣論의 형이상학적 논의보다는 예학이나 心性論, 혹은 현실적인 학문에 더 많은 중심을 두었다. 한강은 언제나 현실적 밀접성 속에서의 사유를 펼치고 있었다. 그 정신의 발로는 예서인 『五先生禮說分類』를 작성케 한다. 禮總論, 天子諸侯의 禮, 士大夫의 禮로 나뉘어 편집된 『오선생예설분류』는 실제 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을 분류별로 나누어 놓았다는 점에서 그의 실학적인 성향을 살펴 볼 수 있다. 그의 심성론과 수양론도 단순한 이론적 작업이 아니라, 현실과의 밀접한 연계성 속에서 논의되고 있다.

한강은 『小學』의 중요성을 극력 주장한다. 특히 소학을 통해 下學과 상달치의

27) 『寒岡全書』「言行錄」“先生 既登退陶先生之門 叩質心經 精思力踐 又拜南冥先生 景仰高風 …… 從遊質問 知見廣大 篤志力行 獨得其宗”

연결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퇴계와 견해를 같이 한다. 이는 퇴계의 언설처럼 소학동자로 알려진 寒暄堂의 餘風이 남아있기 때문일지도 모르나, “『소학』을 배우지 않고 단정치 못하면 장차 재주꾼에 불과할 것”이라는 한강 자신의 우려 때문이었다. 또한 그는 『小學』을 이해한 다음에야 『四書』·『心經』·『近思錄』·『朱子大全』 등을 차례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²⁸⁾ 그는 성인의 경전을 읽음에 있어서 體認·體察·體驗·體行하기를 강조하였다. 그는 고인들이 앵무새를 꾸짖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한구절 한구절을 몸과 마음으로 浚然하기를 요구하였다.²⁹⁾ 모든 학문은 자신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몸으로 체득하는 상태가 될 때 진정한 배움이 될 수 있다는 퇴계학에서의 논지와 함께 하고 있다.

한강이 물론 형이상학적인 측면보다는 실제적인 면을 강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이상학적 측면을 완전히 거부한 것은 아니다. 그는 사변론적인 논의를 통해서 현실과의 밀접한 연계성을 추구하였던 것이다. 한강은 존덕성·도문학 공부가 어느 한 쪽으로 편벽되지 않기를 강조하였다. 그렇기에 그는 주자학에 비해 육구연의 학문이 너무나 지나치게 존덕성 쪽에만 치우쳐 공부하였기 때문에 폐해가 있다고 언급하였다³⁰⁾ 한강에게 있어서 “존덕성은 마음을 두어서 道體의 큰 것을 다하는 것이고 道問學은 치지하여 道體의 자세한 것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이 두 가지 모두가 덕을 닦고 도를 모으는 큰 단서가 되기 때문이었다. 또한 存心이 아니면 致知를 할 수 없고 存心하는 데에는 또한 致知를 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³¹⁾” 한강에게 진정한 공부는 내면적 성찰과 외면적 실행과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공부는 단순한 앎에 머물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원리적 탐구로써 이를 실천하려는 데 있었다. 참으로 안다

28) 『寒岡全書』「教人」“爲學急務 當先致力於小學 然後四書 心經 近思錄 朱子大全 等書 可以次第理會”

29) 『寒岡全書』「言行錄」「讀書」“讀聖賢經典 其法有四 一曰體認 二曰體察 三曰體驗 四曰體行 苟不用此四法 基義亦無以通曉 況吾心身有何益焉 古人鸚鵡之譏 可不懼哉”

30) 『寒岡全書』「言行錄」“朱子尊德性道問學邊工夫 未嘗偏廢 象山之學 偏主尊德性 一邊工夫”

31) 『寒岡全書』「心經發揮」“又曰尊德性所以存心 而極乎道體之大也 道問學所以致知 而盡乎道體之細也 二者修德凝道之大端也 …… 蓋非存心無以致知 而存心者又不可以不致知”

는 일은 사물의 현상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구조의 법칙성'이 무엇인가(所以然之則)를 아는 것이고, 이러한 원리적 구조의 법칙성을 알고 난 뒤, 삶의 현상 속에서 그것이 어떠한 당위적 명제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所當然之故)라는 진지의 지향성, 곧 윤리적 합목적성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³²⁾ 따라서 육구연의 학문은 너무 지나친 내면적 성찰에 함몰되어 외면적 실행력이 약화되는 실책을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한강은 知行並進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지행병진을 위해 한강은 학문하는 사람이 지녀야 할 5가지의 학문방법론을 제시하였다.

- 학문하는 사람은 發憤·立志·勇猛·篤實·深體·力行하여 비로소 얻을 수 있다.
- 학문사람은 스스로 깊이 韜晦하여 오직 남이 알까 두려워하여야만 유자의 기상을 잃지 않는다. 만약 조금이라도 이를 소홀히 하는 사람과는 더불어 학문을 논할 수 없다.
- 학문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그 몸가짐을 규중의 처녀와 같이하여 한 점 티끌을 묻혀서도 아니 된다.
- 학문하는 사람은 차라리 伯夷와 같은 偏性を 지닐지언정 柳下惠와 같은 不恭을 지녀서는 아니 된다.
- 학문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檢身하기를 사소한 데까지 하여야 한다.³³⁾

이를 분석해보면 한강은 학문함에 있어서 먼저 뜻을 정립하고 마음을 가다듬은 다음에 실천적 행위로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행동은 규중의 처녀와 같이 경건하고, 절대로 유하혜와 같은 불공을 저질러서는 아니

32) 정순목(1999), 「한강 정구의 교학사상」 『退溪門下の 인물과 사상』, (서울:예문서원), 440쪽.

33) 『寒岡全書』卷4, 「書」 '爲學之要五' "○學者須是發憤 立志 勇猛 篤實 深體 力行 始得 ○學者須是深自韜晦 惟恐人知 方是不失儒者氣味 若有些求 知底意思 便是爲人不可與共學也 ○學者自指其身 當如閨中處子 不可一點受污於人 ○學者寧失於伯夷之隘 不可學柳下惠之不恭也 ○學者須是檢身 若不及無些子放過 始得"

되며, 사소한 데까지 철저하게 검신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바로 언제나 嚴在整肅의 마음가짐과 행동 즉 몸과 마음이 敬의 상태를 지속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이렇기에 한강은 『心經發揮』에서 주자의 언설을 인용하면서 “경은 근본을 세우고 窮理의 근본이 된다”고 언급한 것이다.³⁴⁾ 곧 “持敬은 궁리의 근본이 되고 궁리하여 이치가 밝아짐은 養心の 補助가 되는 것이다.”³⁵⁾ 이처럼 敬은 한강에게 있어서 안과 밖, 수양과 실천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체이며 학문의 요체인 것으로 퇴계사상의 핵심적 논지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3) 한강의 학맥

한강은 관직생활보다는 실제적으로 고향에 머물면서 川谷書院과 寒岡精舍 등을 통해 성주지역의 많은 인재들을 길러냈다. 40대에 문하생들과 月朔講會契를 조직하는 등 교육활동에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³⁶⁾ 그의 문인들을 잘 알 수 있는 자료는 「檜淵及門諸賢錄」을 들 수 있다.³⁷⁾ 이 「회연급문제현록」은 원래 회연서원에 구본이 있었는데 그후 회연서원의 모임에서 원장 및 裴正徽³⁸⁾가 여러 사람과 자리를 같이하여 수정하였다. 이때에는 50여명에 그치는 인원이었으나, 그 뒤 정구의 祀孫인 芝厓 鄭煒가 170여명을 추가했고, 다시 그 후손 在夔이 60여명을 추가했으며, 최근에는 40명을 추가하여 총 342명에 달하는 문인이 실려있다.³⁹⁾

퇴계학맥은 한강시대에 이르러서, 복인정권의 몰락으로 단절된 월천학맥을 대

34) 『寒岡全書』 「心經發揮」 又曰 主敬以立其本 窮理以進其知

35) 『寒岡全書』 「心經發揮」 “持敬是窮理之本 窮得理明 又是養心之助”

36) 『寒岡全書』 「言行錄」 “先生移居檜淵 構草堂 約諸友率門徒爲月朔講會”

37) 『회연급문제현록』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권연웅, 「『회연급문제현록』소고」 『退溪門下의 인물과 사상』, (예문서원:서울)”을 참조.

38) 許穆의 門人으로 肅宗朝에는 右副承旨兼修撰官을 지냈다

39) 『寒岡全書』 下 “檜淵及門諸賢錄 有院藏舊本 ○其後檜淵之會 院長及裴孤村(正徽) 與僉賢 合席修正 而但書名德顯 著之賢 50餘元 而未及備錄也 ○先生祀孫芝厓公(煒) 隨得隨錄 至170餘賢也 ○後孫省齊公(在夔) 又得 60餘賢也 ○年前收單之日 只增數十餘賢也 一不敢無明據而載錄”

신하여 鶴峯 金誠一·西厓 柳成龍과 함께 3대 학맥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학봉은 임난 때 순국하고, 서애는 관직생활에 많은 일생을 보냈기에 가장 큰 학맥을 이룬 것은 한강 학맥이라 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한강은 퇴남의 영남학파 모두를 융합하는 새로운 기점을 마련하게 된다. 그리하여 17세기 전반 성주 일대는 정구와 장현광에 의해 소위 한려학파가 형성되었다. 이들은 이황 이후 뚜렷한 학문적 중심점을 찾지 못하고 있던 안동권을 대신하여 영남의 학문적 분위기를 주도해갔다. 인조반정 후 영남은 鄭仁弘을 위시한 대북이 몰락하고, 일단의 소북과 영남우도의 많은 선비들이 퇴문으로 기울게 된다.

한강의 학맥은 비단 성주 뿐만 아니라, 칠곡, 인동, 대구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한 예로 칠곡 지역의 대표적인 명가였던 이윤우 집안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이윤우의 선대는 본관이 있던 광주에서 세거하다가 이윤우의 5대조인 통례공을 지낸 克堅 대에 성주목사로 부임해 오면서 성주로 이거해 살다가, 이후 이윤우의 4대조인 승사랑을 지낸 摯 대에 팔거 최씨(崔阿女)에게 장가들면서 처가가 있는 팔거의 上枝에 자리잡게 되었다.⁴⁰⁾ 그는 비교적 가문의 후광없이 초년에 향시에 거듭 입격함으로서⁴¹⁾ 조정에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삼은 사람으로 파악된다. 이후 이윤우 집안은 양자로 간 아들 李道長 이후 子 李元禎 대에 완전히 남인가계로서 굳건한 위치를 점하며 인조반정 이후 서인집권 하에서도 영남남인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정치적인 영향력을 한 가문으로 존재할 수 있었다.

당시는 명가과의 혼인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가세를 일으킬 수 있는 첩경이 되었던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었다. 이원정 집안 역시도 장현광의 손자 鉢이 이원정의 딸에게 장가들므로써 인동장씨와의 혼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또한 그렇게 현달하지 못했던 가정을 배경으로 했던 그가 자신의 뛰어난 학문적 자질과 능력을 바탕으로 당대 인동 일대의 퇴계 이후 제 3세대 학파를 주도했던 장현

40) 『石潭實記』, 〈石潭先生實記〉 “先生之先世居廣州 至五代祖通禮公爲星州牧時 以二子承仕郎公娶八莒崔氏仍居于上枝”

41) 『石潭實記』, 〈石潭先生實記〉 “萬曆 十九年 辛卯赴鄉解捷兩試 是歲中進士”

광 가문과 혼인관계를 가지면서 영남의 명망사족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었던 바탕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이윤우와 이원정 부자의 학통은, 한강 정구에게 이어진다. 한강은 이윤우가 찾아가자 학문하는 순서를 정해주는 등 면려해 주었다.⁴²⁾ 후에 이윤우는 孝宗辛卯(1651년)에 한강이 배향된 자리에 종향되는 은전을 입기도 하는데⁴³⁾ 이는 한강문인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한강은 그의 회현급문록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많은 제자들을 키워내었으나, 후에 한려시비 등으로 고초를 겪기도 한다. 시비의 출발점은 한강이 쭈한 뒤에 발생되었다. 여현은 한강의 姪壻였는데, 고인을 위한 輓詩와 祭文에 문인이라 언급하지 않고, 질서라 언급하고, 상복을 입는 방식도 다른 문인들과 다르자 한강의 문인들이 이를 문제시 삼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 시비는 근본적으로 문인에 대한 개념 정의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다.

한강의 문인들은 지역은 성주권(185명), 안동권(35명), 진주권(26명), 경주권(44명), 그리고 그 외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⁴⁴⁾ 주로 성주권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데, 이 가운데 동강의 아들 孝可 그리고 학봉의 아들 灑과 손자 是樞가 포함되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강의 학맥이 영남 퇴계학맥의 중심지대가 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42) 『石潭實記』, 〈石潭先生實記〉“鄭先生曰 此非初學急務 當先致力於小學 然後四書近思錄朱子書心經等書次第理會 先生於是 知學者用工之本 眞有在乎是也 專心致意 精探力踐 雖在事務倥(人忽)之日 猶不輟默誦工夫 古聖賢微言奧旨 無不得其衷也”

43) 『石潭實記』, 〈泗陽書院奉安文〉“ (中略) 當時及門固多賢哲曰 惟李公寔遵柯則溫雅貞靜愷悌清白衛道之誠尊師之篤操身之要莅官之飾 凡厥懿行宜祭於社 乃梅湖建宇薦罍一邦二祠有舛侍奉附合享 允叶羣議茲涓吉日(ㄴ令)佩咸萃如承警誨聞唯諾邊豆 孔嘉樽罍疊既潔尙鑑昭假萬古啓迪”

44) 李樹健(1995), 『嶺南學派의 形成과 展開』, (一潮閣:서울), 403쪽.

4. 東岡 金字顛의 생애와 학맥

1) 생애와 학문연원

동강 김우옹은 1540년 성주 沙月里에서 태어났다. 그의 父 七峰은 1540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三陟府使를 지냈으며, 퇴계와 남명과도 일찍이 교분이 있었다. 중형인 김우평은 일찍부터 曹植의 문하에 있었으며, 동강과 함께 李滉에게 서신을 교환하였다. 동강은 그 후 20세에 星州教授로 부임한 德溪 吳健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 이러한 가르침은 후일 兩岡이라 칭송받던 寒岡과의 인연이 시작되는 지점이었다. 21세에는 부친의 상을 당하여 3년 居喪한 뒤에, 24세에 會寧浦 萬戶 金行의 딸이자 남명의 외손녀와 결혼하였다. 이해 겨울 남명의 문하에 나아가 본격적으로 수학하게 된다. 이후 남명은 동강을 아껴 '雷天'이란 두 글자와 자신이 차고 다니던 '惺惺子'를 주었다. 남명은 또한 동강에게 "장부는 무겁기가 산악과 같아 만 길 벼랑처럼 우뚝하게 하여, 때가 이르러 그 재능을 펼치게 되면 허다한 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비유컨대 千鈞의 활을 한 번 쏘면 능히 만겁의 굳은 성벽도 부술 수 있으니 진실로 생쥐를 위해서 쏘지 않는 것과 같다.45)"는 말로 대장부와 출처의 의미를 가르쳤다.

27세에 한양에 과거보러 갈다가 평소에 서신으로 예설을 질의했던 퇴계를 직접 배알하게 되었다. 퇴계는 마침 왕의 부름을 받고서 도성에 머무르게 되어 동강과의 만남이 성립된 것이었다. 이 해에 남명의 명을 받들어 「神明畬圖」를 근거로 한 「天君傳」을 짓게 되었다. 이는 太宰 敬과 百揆 義가 각각 内外를 맡아 天君 즉 心の 신하로 활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남명의 심학적 사유를 의인화시킨 것이다. 30세에는 퇴계에게 예에 대해 질문하고, 이듬해인 31세 때 퇴계의 작고 소식을 듣고 여러 선비들을 거느리고 川谷書院에서 곡하였다.

32세 때 承文院에 출사하였다가 免新禮를 이유로 선배 유생들이 신입 유생에

45) 『東岡全書』 「東岡先生年譜別本」 "丈夫動止 重如山岳 壁立萬仞 時至而伸 方做出許多事業 譬之千鈞之弩一發 能碎萬重堅壁 固不爲鼯鼠而發也"

게 불경한 태도를 보이자, 이것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곧바로 귀향하였다. 이 점에 대해 퇴계의 고제인 西厓 柳成龍은 동강에게 면신례의 부당함을 제시함과 동시에 동강의 출처관을 칭송하였다.⁴⁶⁾ 이러한 사실로부터 동강에게 이미 대장부로서의 출처관을 제시한 남명의 가르침을 실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에 남명이 병석에 눕게 되자 몇 달 동안 그 곁에서 지성으로 간호하며 모셨다. 그러나 이듬해 2월에 남명은 동강과 來庵 그리고 寒岡 등을 불러서 出處와 敬義를 재차 강조하고 난 후 儒者가 아닌 處士라고 자신을 지목하라고 하며 세상을 떠난다. 이 때 동강은 남명의 『行狀』과 『言行錄』을 짓는다.

38세에 겨울에는 사직하고 성주로 내려와 수도산 아래에 考槃精舍를 짓고 학문에 종사하였다. 이후 2년 후에 다시 경연에 참여한다. 이 시기는 동서분당으로 인한 당쟁이 격화된 시기였다. 동강은 이후 44세에 성균관 대사성에 임명되어 「成均館學制七條」를 지어 올린다. 이듬해 45세에 「성학육잠」에 이어 「存心養性箴」을 지어 선조에게 바친다. 50세에 鄭汝立의 모반사건에 연루되어 會寧으로 귀양가게 된다. 유배지에서 完齋라는 집을 짓고 51세에 『資治通鑑綱目』 편찬 작업에 착수한다. 이후 이 책은 56세에 완성된다. 53세에 임진왜란의 발발로 사면을 받고, 副護君에 임명되어 전란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그 후 동강을 위해 북쪽의 선비들이 1613년에 會寧에 서원을 세웠고, 1628년 다시 檜淵書院에서 한강과 습후되었다. 한강이 그를 위해 행장을 짓다가 마치지 못하고 세상을 뜨자 旅軒 張顯光(1554-1637)이 행장을 끝마쳤다. 동강의 생애를 살펴보면, 실제적으로 선생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은 덕계·남명으로 부터이다. 퇴계에게는 평생동안 한 번 찾아뵙고, 그에게 서면으로 몇 번 왕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眉巖 柳希春이 경연석상에서 당시 조정 관료 가운데 鄭惟一·具鳳齡·金誠一이 퇴계의 문하이고, 동강도 또한 그 문하일 것이라 아뢴 것에 대해 동강은 “퇴계와는 거리가 멀어 그의 문하에 있지 못했고, 오직 남명에

46) 『西厓集』 書 「答金肅夫」 “槐院謬例 一舉蕩滌 今榜 已行相揖禮 此因君有是事 是知賢者進退俱有所管 可慰”

계만 사사하였다”고 밝히고 있다.⁴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계에 대한 동강의 존경의 자세는 뚜렷하다. 동강은 퇴계를 경연에서 諡號내리기를 청하면서 퇴계의 학문은 ‘우리 동방의 일인’이라 평하였다.⁴⁸⁾ 또한 회령의 유배지에 있을 때 퇴계 선생이 직접 쓴 글 “思無邪 毋不敬 慎其獨 毋自欺”를 붙여 놓고 때마다 자신을 성찰하였다고 한다.⁴⁹⁾ 이에 동강이 죽은 후 한강이 그를 위해 만시를 쓰면서 “퇴계의 正脈을 평생동안 우러러보았고, 山海의 高風을 특히 흠모했네⁵⁰⁾”라 기술한 것이다. 이로 볼 때 동강의 학문 연원은 분명 남명에게 近似하였으나 퇴계와 남명 모두의 학문적 특성을 아우른 인물로 볼 수 있다.

2) 東岡의 학문세계

동강은 남명의 학문이 철저한 실천궁행과 치용에 있다고 언급하면서, “학문을 함에 대략 枝葉을 버리고, 마음에 깨달은 것을 귀하게 여겨 치용과 실천을 급무로 삼았기에, 강론하고 분석하는 말을 기뻐하지 않았다. 그러한 일은 대체로 빈말에 불과하고 궁행에 무익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고 술회하고 있다.⁵¹⁾ 이러한 점은 선조가 동강에게 남명의 학문에 대해 묻자, 동강은 퇴계와 비교하면서 “致知의 공부는 李滉의 博大함에 미치지 못할 듯 하지만, 躬行實踐의 공부는 심히 독실하여 정신과 기백이 사람을 놀라게 하는 점이 있었다⁵²⁾”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실천적 성향은 동강에게 그대로 전수된다. 한 일례로 선조에게 ‘학문의

47) 『東岡集』 「經筵講義」 癸酉 11月 30日 條 “小臣以所居稍遠 未及受業於其門 故微士贈大司憲 賁植 實臣之所事也”

48) 『東岡集』 筭 「請退溪李先生賜諡筭」

49) 『東岡全書』 「東岡先生年譜別本」 “又曰省愆堂 李退溪先生手書 思無邪 毋不敬 慎其獨 毋自欺 十二字 貼於壁 時自顧省”

50) 『東岡全集』 附錄, 鄭逮의 「挽詩」, “退陶正脈終天慕 山海高風特地欽”

51) 『東岡集』 行狀, 「南冥先生行狀」 “其爲學也 略去枝葉 要以得之於心 爲貴 致用踐實爲急 而不喜爲講論辯析之言 蓋以爲徒事空言 而無益於窮行也”

52) 『東岡集』 「經筵講義」 癸酉 11月 30日 “其致知之工 似不若滉之博大矣 然其窮行實踐之工甚篤 精神氣魄 有動悟人處”

요체는 평실한 곳에 힘을 들여야 하지 고원한 것을 궁구해서는 안된다'면서 학처에서부터 공부해야 할 것을 주장한다.

顯微는 一理로 모두 마땅히 궁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인사가 더욱 절실하기에 학문을 함에 下學處에서 공부를 착수케 되면, 그 가운데 저절로 상달이 있게 됩니다. 제왕의 학문은 더욱 자기에게 절실한 사유를 함으로써 자신에게 체득하여 실용에 베풀어야만 할 것입니다.⁵³⁾

이 언급은 진정한 학문이란 고원한 것을 담론하는 것이나 문자를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 실효성을 지니는 것이며, 제왕과 같이 현실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자는 더욱더 현실의 지평에서 학문해야함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선조가 학문의 방법에 대해 질문하자 “학문의 요체는 별다른 妙法이 있는 것이 아니라, 求放心과 敬에 있으며, 진정한 학문은 고원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天道와 性命의 오묘함을 말할 필요가 없다⁵⁴⁾”고 언급하였다. 그는 『進聖學六箴疏』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대체로 뜻은 정하지(定志) 않을 수 없기에 규모를 크게 정하고 표준을 높이 세워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이미 올바른 후에야 순서를 따라 점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학문은 강론하지 않을 수 없으니 강습하고 토론하며 격물궁리하여 의리가 명백해진 이후에 체인하고 역행할 수 있습니다. 居敬하고 存心함이 이미 한 때라도 혹 게으르게 함이 없어야 할 것이며, 克己하고 檢身하기를 하루라도 감히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위기지학을 위한 정성됨과 간절함이 이와 같다면 또 반드시 군자를 가까이 하여(親君子) 날마다 충언으로 보익케 하고, 또한 소인을 멀리 물리쳐(遠小人) 간사한 아첨이 뜻을 의혹시키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조심하고 두려워하기를 날마다 삼가해서, 人心과 私欲이 그 틈을 보지 못하도록 하고, 이 마음을 끌고 나아가 밝은 天命을 돌아보기를 매우 부지런하게 힘쓰고 그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

53) 『東岡集』 「經筵講義」 甲戌 10月 14日 “顯微一理 皆所當窮 但人事尤切 爲學須先於下學處下工 則上達在其中 帝王之學 尤須切己思惟 體之於身 而施之於用”

54) 『東岡集』 「經筵講義」 癸酉 12月 2日 條 “學問別無妙法 孟子曰 學問之道 無他 求其放心而已 先儒曰 敬之一字 是至約處 …… 大抵此學 不在高遠 不必常談天理性命之妙”

게 마음이 매우 밝아지고 도의가 흘러 넘쳐 動靜云爲와 號令을 시행함에 있어서 가는 곳마다 그 적합함을 얻지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 제왕의 학문은 이것에 불과하며, 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효능도 여기서부터 시행될 뿐 다른 방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⁵⁵⁾

「성학육잡」의 특성은 요순의 평천세계가 다가올 것이라는 큰 뜻을 품고,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심성론적으로 천명과 반대되는 인심·사욕을 끊어버리고, 군자와 대립되는 인간인 소인을 멀리하라는 점에 있다. 동강이 이러한 공부론은 아마도 남명 퇴계 모두에게서 영향받은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남명 사유의 한 축은 지극한 純潔性의 세계, 즉 청정무욕의 세계에 닿아 있다. 이러한 그의 사유가 동강에게 영향을 준 것이라 하겠다. 퇴계의 사상이 구체적으로 동강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러나 그의 주장에는 퇴계의 공부론이 지니고 있는 몇 가지 특색을 드러내고 있다. 퇴계의 공부론에는 근원적 진리가 인간의 욕구와 욕망에 기대지 않고도 스스로 현시될 수 있다는 낙관론이 자리하고 있다. 즉 요순의 이상적 세계는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넘어섰을 때 비로소 성취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인심과 사욕이 넘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동강은 그 방책으로 퇴계와 남명이 모두 주장했던 「경과 의」를 주창한다. 경과 의를 통해 心의 淸明性을 조금도 사욕과 인심에 오염시키지 않기를 주장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현실에의 정치적 안정화와 평천하의 세계가 오기를 꿈꾸었던 현실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는 성균관 대사성에 임명되어 「成均館學制七條」를 올리면서, 老佛百家之集을 읽는 사람, 高談異論을 좋아하는 자를 벌한다는 내용을 싣고 있다. 그는 근본적으로 무형의 초월적인 세계를 꿈꾸는 것을 거부하고 유자의 지점인 현실

55) 『東岡集』「進聖學六箴疏」“大抵志不可以不定也 大作規模 高立標準 趨向既政 然後可以循序而漸進 學不可以不講也 講習討論 格物窮理 義理明白 以後可以體察而力行 居敬存心 既無一時之或怠 克己檢身 又無一日之敢忘 其爲己誠切 至於如此 而又必親近君子 日資忠言之補益 遊遠小人 俾無邪媚之惑志 兢兢業業日慎 一日不使人心私欲投其隙 而提撕接續 顧認明命 矍矍孜孜 俛焉而不已 則自然方寸融明道義流轉 動靜云爲 號令措施 無適而不得其所止矣 帝王之學 不過如是 而修齊治平之效 自此而措之耳 非有他道也”

안에서의 도덕적 세계를 꿈꾸었다. 이러한 도덕적 현실인식의 특성은 그가 지은 『續資治通鑑綱目』에서도 드러난다. 『속자치통감강목』은 朱子の 「資治通鑑綱目」에 기술된 전통적 역사서술방식에 의해 저작된 서적이다. 주자는 도덕적 성찰을 제공해 주지 않는 역사 연구란 무의미한 것이고 부질없는 놀음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았다. 주자가 만년에 “考證은 또 하나의 별다른 공부이다. 얻는 바에 비해서 힘이 많이 든다. 내가 우연히 그것을 좋아했던 것은 하나의 병통이다⁵⁶⁾”라고 술회하고 있는 것은 실증과 고증이 가질 수 있는 탈도덕적 경향을 경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적 도덕의 세계를 추구하고자 했던 동강의 의지가 「속자치통감강목」을 짓도록 유도한 것이었다. 퇴계사상과의 접점을 읽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 점에서 葛菴 李玄逸이 “선생이 일찍이 남명 선생의 문하에 수학하여 이미 立身行己와 出處進退의 의리를 알게 되었으며, 다시 文純公 퇴계 선생을 뵈고서 성현이 서로 전한 도통의 眞訣을 듣고, 持敬과 窮理가 도에 들어가고 덕에 나아가는 요체임을 알았다⁵⁷⁾”는 동강에 대한 평은 매우 의미심장한 것이다.

3) 동강의 학맥

동강의 학맥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는 그의 후손 重齋 金梈이 연대순으로 작성한 「及門錄」이다. 이 「급문록」에는 동강의 문인으로 무려 56명이 실려있다. 이들 문인의 지역은 대개 성주를 중심으로 하여 대구(徐思達·李之英·都進齋 등)·진주(河淵尙 등)·회령(尹崑 등), 함양(盧勝·盧亨雲 등), 예천(鄭允穆 등) 등의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성주에 거의 60-70%에 가까운 대다수의 문인들이 자리잡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대구에 문인들이 많다.

동강 문인들의 특징은 한강의 제자들과 겹쳐진 인물들이 많다는 점이다. 그

56) 錢穆, 『朱子新學案』 “考證又是一種工夫 所得無幾 而臂費不少 向來偶日好之 固是一病”

57) 『東岡全書』 李玄逸 「東岡先生文跋文」 “先生早遊南冥之門 已知君子立身行己 出處進退之義 既又從退溪李文純公 得聞聖賢相傳道通眞訣 乃知持敬窮理 爲入道進德之要”

대표적인 예로 李堉·李塉·李垺 형제를 들 수 있다. 이육·이학·이상 형제는 全州李氏 孝寧大君의 後孫으로 동강, 한강 양 문하 모두에게 수학하였는데, 모두 과업을 폐하고 專心으로 爲己之學을 하여 당시에 五賢 가운데 三賢이라 불리었다. 이 외에도 宋光進·宋光啓형제, 金忠可·金得可·金達可·金成可형제, 金庭契·金庭堅 형제 등을 제자로 두었다. 그러나 동강이 죽고 난 이후에 남명의 학맥은 대부분이 한강과 旅軒 張顯光의 문도에 속하고 거의 단절되다시피 하였다. 이러한 남명학맥의 단절은 인조반정으로 인한 북인정권의 몰락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북인정권의 몰락으로 인해 성주에 광범위하게 자리잡고 있던 남명학맥은 서서히 사라져가게 되었다. 그리하여 퇴남양학파의 교차지점인 성주는 점차 퇴계학맥이 그 중심을 이루게 되었다.

5. 맺음말

성주 지역은 퇴계 학파의 형성과 발전, 그리고 분화의 과정을 비교적 자세하게 보여 준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지역이다. 성주는 경상좌도와 우도의 분기점으로서 퇴계와 남명의 양 사상을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지역이다. 서론 부분에서 잠시 언급하였으나, 이 지역은 川谷書院의 설립과정, 한강과 동강의 등장과 퇴계학파, 그리고 한주학파의 분화과정 등에서 보이듯이 퇴계학파의 성격을 이해 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이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사회 경제적인 조건과 이 지역 퇴계학파의 발전과정이 과연 어떤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이러한 사실들을 제대로 구명할 수 없었고, 단지 한강과 동강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퇴계학파의 성립과정에 관해서만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필자의 견해로는 한강은 물론 동강의 학맥까지도 마땅히 퇴계학파의 범주 속에 포함하여 논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남명학파와의 중첩 부분은 사상사의 큰 줄기에서 보면 하등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해된다.